

2016년 OECD 농업정책평가: 신흥국의 최근 농정변화*

임 송 수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1. 서론

OECD는 2016년 7월에 회원국 및 주요 파트너 국가들의 농업정책 변화와 농업보조에 관한 정보와 통계를 담은 “농업정책 관측과 평가(Agricultural Policy Monitoring and Evaluation, APME)”을 발간하였다(OECD 2016a). 이 보고서는 OECD APME의 제29차 연차 발간물이며, OECD 회원국과 신흥 경제국을 함께 다룬 네 번째 보고서이기도 하다. 이 보고서는 34개 회원국과 비회원국으로서 EU 회원국인 7개국 및 9개 신흥국(브라질, 중국,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러시아, 남아프리카, 우크라이나, 베트남)을 다루고 있다.

여기서는 중국,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멕시코, 러시아, 남아프리카, 베트남, 터키 등 총 9개국의 정책변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각 국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 3가지로 요소로 구성된다.

- 농업에 대한 지원
- 주요 정책의 변화
- OECD의 평가와 제안

* (songsoo@korea.ac.kr).

2. 주요 신응국의 농업정책 변화와 OECD 평가

2.1. 중국

2.1.1. 농업에 대한 지원

중국의 농업부문에 대한 지원은 꾸준히 상승하여 2013-15년의 총매출(gross farm receipts)의 20%를 넘어섰다. 이는 OECD 평균을 웃도는 수준이다. 2015년에는 쌀과 밀의 저가정책을 고수하여 2014년 수준을 유지하였다. 또한 기존의 수매가격(intervention prices) 정책에서 목표가격(target price)과 실제 시장가격의 차이를 보상하는 체제로 전환하면서 가격을 유지하는 농산물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그러나 계속해서 하락하는 국제가격으로 말미암아 시장가격보조(Market Price Support, MPS)가 늘어나 그 기록을 갱신하게 되었다.¹⁾ 총보조추정치(Total Support Estimate, TSE)는 최근 몇 년간 GDP의 3.1% 수준이었다.²⁾ 경작 농지를 기초로 한 지원도 증가하고 있으나, 시장가격보조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일반서비스보조추정치(General Services Support Estimate: GSSE) 중 가장 많은 자금을 지원 받는 항목은 ① 하부구조 구축과 관리(development and maintenance of infrastructure), ② 공공 비축과 농업 지식(public stockholding and agricultural knowledge), ③ 혁신체제(innovation system) 등이다.³⁾

국내가격이 세계가격보다 평균 23% 높기 때문에 가격왜곡 수준은 높은 편이다. 달걀과 가금육을 제외하고 생산자 대부분은 20-40%의 높은 이전 수익(transfers accounting)을 얻고 있다. 남기기도 했다. 2015년에 면화에 관한 수매제도가 폐지되면서 중국의 면화가격은 거의 국제가격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와 같은 가격 하락에 대응하여 정부가 보상 직접지불(compensatory payment)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로써 면화 생산농가의 매출액 대비 보조가 늘고 있다.

- 1) 시장가격보조(MPS)는 소비자와 납세자로부터 농업 생산자에게 이전되는 연간 총 이전금액을 지칭함. 이러한 이전은 특정 농산물의 국경가격과 국내가격 사이에 격차가 나도록 하는 정책 조치에 의한 것임.
- 2) 총 보조 추정치(TSE)은 두 가지 방식으로 산출될 수 있음(OECD 2016b). 첫 번째 방식은 수혜자에 따라 이전되는 금액을 합산하는 것으로 생산자에게 이전(Producer Support Estimate: PSE), 일반 서비스에 이전(GSSE), 납세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이전 등의 합계임. 두 번째 방식은 지원을 출처에 따라 이전되는 금액을 합산하는 것으로 소비자로부터 이전과 납세자로부터 이전의 합계를 말함.
- 3) 일반서비스보조추정치(GSSE)는 정책조치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다음과 같은 이전을 합산한 것임.
 - 농업지식과 혁신체제(agricultural knowledge and innovation system)
 - 검사와 통제(inspection and control)
 - 하부구조의 개발과 유지(development and maintenance of infrastructure)
 - 유통과 홍보(marketing and promotion)
 - 공공비축에 따른 비용(cost of public stockholding)
 - 기타(miscellaneous)

2.1.2. 주요 정책의 변화

2015년에 중국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국내의 가격 격차를 통제하기 위한 조치들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은 다음과 같다.

- 밀과 쌀의 최소가격(minimum price)을 2014년 수준으로 동결⁴⁾
- 옥수수의 최저 지지가격(floor price)을 10% 감축
- 면화와 콩에는 보상 직접지불과 합한 목표가격 제도를 계속 적용
- 유지종자에 대한 최저 지지가격 조치의 중단
- 사탕수수의 최저 지지가격의 감축

이 밖에도 중국은 곡물 농가에 대한 직접지불, 농업 투입재에 관한 포괄적 보조, 종자보조를 단일 지급으로 통합한, 이른바 “농업지원보호보조(agricultural support and protection subsidy)”를 만들었다. 이 보조의 4/5은 토지 사용권을 지닌 농업인에게 면적 기준으로 지급되었다. 이는 경작농지의 비옥도를 유지하고 곡물생산 능력을 보전하기 위함이다. 이 보조의 1/5은 토지를 임차하여 경작하는 대규모 “새로운 형태(new-style)”의 농가에 배정되었다.

2.1.3. OECD의 평가와 제안

중국 농정에 관한 OECD의 평가와 제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수매가격 제도를, 식재면적에 부분적으로 기초한 보상 직접지불과 연계한 목표가격 제도로 대체하는 최근의 개혁은 옥수수, 쌀, 밀 등을 포함하는 형태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미래에는 보상 직접지불과 생산에 관한 의사결정의 연동을 제거하기 위해 과거의 생산면적에 기초해 지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환경에 친화한 방식을 재배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농경지와 농업용수가 중국 안에서 점점 희소해 지고 있고, 농업에 의한 환경오염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제부터 농업생산 증대는 지속가능한 생산성의 개선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농업환경 정책 목표들의 연대가 개선되도록 기존의 농업정책들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농업용수 가격에 관한 개혁이 촉진되어 물의 사용에 대한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해야 한다.

4) 중국이 특히 밀의 최소 수매가격의 동결한 이유는 WTO 보조규범을 준수하기 위함임(Sharma 2016).

- 농가의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농촌의 교육의 기회와 보건 하부구조 구축이 확대되어야 한다. 고령 인구를 위해서 정부는 농가의 연금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 국내시장에서 식량공급의 잠재적 변동성을 줄이려면 국내외 농식품 시장의 더욱 강력한 통합을 통해 식량 공급처의 다각화를 추진해야 한다.
- 더욱 효과적인 농가에 토지를 재분배 하는 일을 용이하게 하려면, 농가의 토지 사용 권리를 강화하는 최근의 토지시장 개혁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 모든 농촌 가구에 토지 사용권리가 담긴 증명서 제공
 - 농지와 건설 용지의 양도권을 위한 투명한 교환의 장을 마련
 - 농지의 사용권한이 만료되자마자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도록 함으로써 농지의 사용권 기간을 연장
 - 이주 노동자에 대한 영주권 제도를 도입하여 그들의 토지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공공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

2.2. 콜롬비아

2.2.1. 농업에 대한 지원

2013-15년에 콜롬비아의 생산자보조추정치(%PSE)는 농가 총 매출액의 평균 17%였다. 시장가격보조(MPS)는 생산자보조추정치(PSE)의 주된 구성요소인데, 같은 기간에 공여된 총 보조의 2/3가량을 차지하였다. MPS는 옥수수, 쌀, 가금육, 우유, 설탕, 돼지고기 등과 같은 농산물에 대한 국경조치에 의해 주로 결정된다. 같은 기간에 예산 이전(budgetary transfer)은 PSE의 22%를 차지하였는데, 이 가운데 변동 투입재 사용에 따른 지급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⁵⁾ 일반 서비스를 위한 예산 이전, 곧 GSSE는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로 사용되었는데, TSE의 16%에 불과하였다. 이에 포함된 지출은 농업연구와 기술이전, 특히 관개나 농가 구조조정과 같은 하부구조 등이다.

2.2.2. 주요 정책의 변화

2015년에 새롭게 만들어진 “콜롬비아 시엠브라(Colombia Siembra)”은 주요 작물의 경

5) 예산 이전은 모든 정부기관들에 의해 집행되는 보조를 말하며, 가장 “가시적인(visible)” 형태의 이전이라 할 수 있음. 가격이 전이나 매출액 포기에 기초하여 추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고, 직접 관측하여 얻을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임.

지면적과 단수를 높임으로써 농업 생산을 증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⁶⁾ 이 프로그램은 구획 설정 프로그램(zoning program), 위험 관리 프로그램, 그리고 생산자들을 위한 금융과 기술지원 서비스 등을 포함하고 있다.

2015년도엔 기관의 개혁도 이루어졌다. 예를 들면, 농촌개발과 토지 문제를 다루는 INCODER가 해체되고, 2016년에 새롭게 창립된 국립토지청(National Land Agency), 농촌개발청(Rural Development Agency), 국토개혁청(Renovation of Territory Agency)이 나누어 담당하도록 하였다.

2015년도에는 새로운 주요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농업부문에 예산 이전이 이뤄졌다. 이 프로그램 예산의 75%는 관개, 유통, 홍보, 자문서비스 등 일반 서비스에 사용되었고, 나머지는 투입재 보조로 지급되었다. 무역정책 조치의 개혁도 시행되었다. 비료나 농약의 수입관세가 모두 철폐되었다. 콩과 렌즈콩(lentils) 및 마늘의 관세는 2016년 6월까지, 야자유의 관세는 2016년 8월까지 각각 0%로 낮아졌다. 설탕에 대한 관세는 117%에서 인하되어 7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조정되었다.

2.2.3. OECD의 평가와 제안

콜롬비아 농정에 관한 OECD의 평가와 제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콜롬비아의 농업부문은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다양한 구조적이면서 제도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 공공재와 서비스에 대한 낮은 투자, 열악한 토지 관리, 토지 개혁의 실패(40%이상의 토지 소유가 여전히 비공식), 장기화된 내전 등이 콜롬비아 농업의 고질적 방해 요소이다.
- 농업부문에서 일반 서비스에 대한 지원은 간과되고 있으나, 시장을 왜곡시키는 형태의 지원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시장가격보조(MPS)가 생산자들을 지원하는 주된 방법이며, 이는 높은 관세와 관세할당, 그리고 특별히 “안데스 물가안정제도(Andean Price Band System, SAFP)”로 구성되어 있다.⁷⁾ 콜롬비아는 또한 다양한 물가안정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 가운데 물가안정기금(Price Stabilization Fund: FEP)은 높은 수준의 가격 지원에 기여하고 있다.⁸⁾ 일부 농산물에 대해 물가안정

6) “콜롬비아 시엠티브라” 계획은 2018년까지 16억 달러(약 1조 8,648억 원)를 투자하여 100만 ha의 농지를 확대하고 26만개의 일 자리를 창출한다는 야심찬 목표를 표방하고 있음(<https://goo.gl/ZNjEqM>).

7) 1990년대 중반부터 시행되고 있는 안데스 물가안정제도(SAFP)는 안데스 공동체(Andean Community)가 공동으로 채택하고 있는 관세 정책으로 기본 증가세(ad valorem)를 바탕으로 하여 국제가격의 변동에 따라 추가 관세 또는 관세 인하 등을 적용하여 수입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을 말한다(OECD 2015).

8) 물가안정기금(FEP)은 해당 산업부문이나 생산자단체가 조성하는 준조세 금융으로 면화, 야자유, 사탕수수, 코코아, 소고기,

기금이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평가해야 할 것이다.

- 하부구조, 농업 연구개발, 농업기술의 이전, 농가 구조조정 등 아주 중요한 부문은 여전히 제한된 지원을 받고 있다. 생산자들이 직면한 문제들에 대응하는 단기 처방들은 더욱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성장에 필요한 능력형성으로부터 희소한 농업자원을 전환시키고 있다. 투입재 보조는 중요한 정책이고 생산자에 대한 예산 이전을 능가한다. 토지권과 관련된 특별한 프로그램도 시행되고 있다.
- 프로그램들이 좀 더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중복되는 부분을 줄여야 한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너무 폭넓게, 명확한 목표 없이 실행되고 있다.
- 민간 생산자들 단체들을 시행한 것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정책수단과 프로그램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영향 평가는 비용과 편익에 근거한 정책수단의 재정의와 재구성을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조직간 협력이 개선되어야 하며 농가에 정보가 더 잘 전달되어야 한다.
- 콜롬비아는 토지소유권이 너무 집중되어 있다는 것과 농지로 사용 가능한 땅이 방치되어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개선된 토지 소유권은 농업부문의 장기적인 성장에 기여하고 농촌 개발을 촉진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2.3. 인도네시아

2.3.1. 농업에 대한 지원

인도네시아는 현재 농업 정책은 2012년에 제정된 새로운 식량법(Food Law)과 더불어 일련의 개혁이 실행되면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개혁에서 농정을 지배하는 중요한 원칙으로서 식량 자주권(sovareignty)과 식량 자립(self-reliance)이 대두되었다. 실제로 이 정책과 프로그램은 쌀, 옥수수, 콩, 설탕, 소고기 등을 포함하여 여러 농산물의 자급(self-sufficiency)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농가지원은 최근에 크게 증가했다. 시장 개입을 통해 자급률을 높이려는 노력은 국내 가격과 국제 가격의 격차를 더욱 벌려놓았다. 대부분의 보조는 시장가격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지급되었다. 인도네시아의 %PSE는 2013년에 농가 매출의 20%에서 2015년에 29%로 크게 증가했다. 농업이 인도네시아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총보조추정치(%TSE) 또한 조사된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GDP 대비 4%를 기록하였다. 반면에 농업에 대한 일반서비스(GSSE)는 상대적은 낮아 2013-15

우유 생산자들의 소득을 지원하는데 사용됨.

년에 TSE의 평균 5.2%였다.

2.3.2. 주요 정책의 변화

2015-16년에 인도네시아는 2012년부터 채택한 농정 기조를 유지하였다. 시장가격보조(MPS)은 국내 및 무역 정책을 통해 실행되었고, 비료, 종자, 신용 등 변동 투입재에 대한 예산 이전 형태의 보조가 주로 제공되었다. 정부는 설탕, 콩, 벼에 대한 최소 구매가격을 유지하였다. 인도네시아는 야자유와 코코아에 부과하는 수출세를 유지해 왔으나, 야자유 바이오디젤의 의무 사용 비율을 기존의 15%에서 20% 수준으로 증가시키는 계획을 2015년에 발표했다.

비료 보조는 농업에 지원되는 예산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인도네시아의 연료보조 조치의 개혁을 통해 절약한 재원이 농업 분야로 유입되면서 비료 지원에 대한 자금이 증가하였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관개 시설에 대한 투자도 2015년에 증대시키면서 관개시설의 개선 노력을 지속하였는데, 대부분의 관개시설 투자는 쌀 생산을 위한 것이다.

쌀과 관련하여 인도네시아의 유통국(Indonesian Bureau of Logistics, BULOG)⁹⁾이 시장 운영과 구매 기능을 담당한다.¹⁰⁾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식량자급 정책과 관련된 무역장벽의 영향으로 인도네시아의 쌀 가격은 국제가격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되었다. 2015년에 쌀의 시장가격보조는 PSE의 40%를 차지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가장 큰 보조 인상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가격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BULOG는 저소득층에 보조된 쌀 가격으로 쌀을 공급하는 RASKIN 제도를 이어왔다. 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2014년에는 14억 달러(약 1조 6,317억 원), 2015년에는 17억 달러(약 1조 9,814억 원)의 예산이전이 이뤄졌다.¹¹⁾

2.3.3. OECD의 평가와 제언

현재 인도네시아 농업 정책의 흐름은 국내와 국제가격 사이의 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다. 식량 안보와 식량 접근성을 달성하기 위해 정책의 초점이 식량자급에 맞추어져

9) (<http://www.bulog.co.id>).

10) BULOG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담당함(OECD 2012).

- 보조된 가격으로 빈곤층에 쌀의 공급
- 가격 조절을 위해 쌀을 시장에 방출
- 정부 쌀 비축량의 관리
- 정부 구매가격으로 쌀 구매

11) 2016년 기준으로 RASKIN 제도가 대상으로 하는 가구는 1,553만호에 이르며, 물량은 약 280만 톤으로 상한이 정해져 있음.

있다. 그러나 관측되고 있는 가격효과는 2012년 식량법의 주요 목표에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RASKIN 프로그램이 저소득가구에 식량 접근성을 향상시킨 것은 사실이나, 최근 OECD 분석은 RASKIN이 영양결핍률(undernourishment rate) 기준으로 측정된 식량 안보를 효과적으로 개선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¹²⁾ 현재의 인도네시아 농업 정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개선 사항이 적용되면, 인도네시아의 농업은 식량 안보와 생산성이 향상되며 사람들의 식량 접근성이 개선될 것이다.

- 쌀 공급자에 대한 의존성과 조달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RASKIN아래 쌀을 공급하는 기존 방식에서 조건부 현금 지급 방식으로 전환을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
- 비료 보조는 비용이 높은 데 반해 농가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중국처럼 인도네시아도 비료 보조를 면적당 지급하는 비연계 보조(decoupled payment)로 전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로 국내 생산성 향상, 혁신, 농업에 대한 민간의 투자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빈곤 종식, 국내 생산성 촉진 등에 정책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 투입재 보조 감축으로 절약된 예산은 인도네시아의 농업혁신체제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농업 생산성을 증진시키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 인도네시아는 농식품 수입과 관련한 식품안전, 검역, 식품기준, 식품정보표시 등과 관련하여 많은 행정 절차를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늘어나는 행정 필요와 일정하지 않은 행정 처리, 규칙을 자주 변하므로 나타나는 불투명성은 인도네시아의 무역 비용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행정 절차들이 과학적 근거에 의해 설정되고 이를 더욱 투명하고 일관되게 이행한다면, 증대되는 무역 비용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2.4. 카자흐스탄

2.4.1. 농업에 대한 지원

2009년 이전까지 생산자 보조수준은 큰 폭으로 변동하였으나, 최근에는 12% 수준으로 안정되었다. 2014년에 10%이던 생산자 보조수준은 2015년에 15%로 증가하였다.

12) OECD(2014)은 RASKIN에 따른 행정비용이 높고 영양실조 인구에 제대로 목표화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함. 또한 영양결핍 인구를 줄이는 측면에서도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쌀 이외의 다른 곡물을 포함한 식량 구매권(food voucher) 제도로 전환할 것을 권고함.

이러한 큰 폭의 증가는 시장가격보조(MPS)가 크게 늘어나면서 나타난 결과인데, 시장 가격보조가 생산자 보조의 약 40%를 차지한다. 예산 이전은 주로 농장 투자를 보조하는 형태로 이루어졌고, 총보조추정치(TSE)의 거의 3/4은 생산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지급되었다. 나머지는 일반 서비스와 식품 가공업체에 지원이었다.

2.4.2. 주요 정책의 변화

2015년부터 2016년 초반까지 여러 가지 정책 변화가 시행되고 승인을 받았다. 이 변화 중에 중요한 것은 2016년 1월부터 곡물 구매제도를 폐지한 것이다. 이와 함께 주요 곡물에 대한 ha당 지급을 없애고, 면화의 품질 전문화와 종자에 대한 보조금도 폐지하였다. 토지법의 개정으로 2016년 7월부터 민간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게 되었다. 조세법(Tax Law) 개정을 통해 미개간 농지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농기업의 토지세를 5배 증가시켰다. 또한 농업협동조합법(Law on Agricultural Cooperation)이 201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였는데, 이 법은 농가들로 하여금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을 촉진하며 다양한 분야의 지원조치들을 가능하게 한다. 카자흐스탄의 WTO 가입은 무역 분야에 있어서는 큰 도약이었다. 19년 동안 가입을 위해 협상해 오던 것이 2015년 6월 22일에 타결되어 카자흐스탄은 2015년 11월 30일에 WTO 회원국이 되었다.

2.4.3. OECD의 평가와 제안

카자흐스탄 농정에 관한 OECD의 평가와 제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2016년에 시행된 개혁들 중 일부 조치들은 생산을 제한하고 무역을 왜곡하는 형태의 보조이다.
- 2013년부터 농업 부채 구조를 폭넓게 조정하는 정책이 실행되고 있다. 이 정책은 토지 사용권(concessions)을 부여하거나, 느슨한 지원 요건아래 만성적 적자 운영이 지속되지 않도록 견제하는 게 중요하다.
- 공공 지원 분야에 더욱 투명하고 경쟁력 있는 절차는 정부 지원의 효과를 증진시킬 것이다. 보조 지급의 전산화 계획은 올바른 방향이다.
- 농지의 민간 소유권을 도입하는 것은 자립 가능한 토지 시장을 구축하고, 장기적 투자를 이끌어내며, 토지 생산성을 향상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 주요 작물에 대한 ha당 보조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지역의 특화계

획(regional specialization scheme) 준수를 조건으로 보조 지급과 특혜 신용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것은 개혁의 효과를 침해할 수 있다. 이는 또한 생산 다각화를 제약함으로써 농장의 위험관리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 생산자들이 시장과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것과 천연 자원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부각되어야 한다. 농업 자문서비스를 위한 체제를 구축하고 농촌지역에 젊은 인재들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은 행정적으로 요구되는 조건들을 만족시킬 경우 지급하는 보조보다도 농가의 의사결정과 실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더욱 효과적인 정책이 될 것이다.
- 최근에 추진되고 있는 하부구조 구축사업은 취약한 교통 하부구조를 강화하고 수자원과 토지 경영을 개선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투자는 제시된 농업기술 목표 달성에 반드시 필요하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2.5. 멕시코

2.5.1. 농업에 대한 지원

1990년대 초부터 멕시코는 중대한 농업정책 개혁을 시행해 오면서 시장가격 왜곡 정도와 농가의 매출액 대비 보조 비율을 상당히 줄였다. 그러나 2000년 이래 그 왜곡 현상이 다시 심화되고 있다. 가변 비용과 연계된 보조가 증가했는데, 특히 전기요금 보조나 가격헤징 계약(price hedging contract)이 사용됐다. 2014년에는 생산형(Productive) PROAGRO이 PROCAMPO를 계승하여 도입되어 면적 직접지불을 생산과 재연계(recoupling)시켰다.

2013-15년에 생산자들에게 지급된 보조(PSE)는 전체 농업부문 보조의 80%를 차지했으며, 나머지 12%는 일반 서비스, 8%는 소비자들에 대한 보조로 사용되었다. 시장가격보조, 생산 및 가변 및 자본 투입재 사용과 연계된 보조가 모두 합하여 77%를 차지하였다. 2013-15년에 일반 서비스에 투입된 보조의 87%가 하부구조와 농업지식 체제에 집중되었다.

2.5.2. 주요 정책의 변화

2013-2018년 멕시코의 농업개발계획(Agricultural Development Plan: ADP)은 농업 생산을 증진시키고 주요 곡물과 유지종자의 자급률을 높이며 농식품 무역 적자를 해소한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¹³⁾ 이 계획은 2015년에도 큰 변화 없이 시행되었으나, 2014년

에 발생한 국제 곡물가격 하락으로 소득 손실을 입은 곡물농가에 대해 추가적으로 지원하였다. 농촌개발과 소농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간소화하여 효율성과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증대하였고 프로그램 이행에 따른 행정비용 감축도 도모하였다.

멕시코가 미국에 수출하는 설탕에 대한 반덤핑과 상계관세 문제는 멕시코산 설탕에 쿼터를 설정하는데 합의하면서 해결되었다. 2008년부터 미국과 진행해 온 멕시코산 소고기에 대한 원산지 표시 조항(US mandatory country of origin labelling, COOL)에 관한 WTO 분쟁도 해결되었다(WTO 2015).

2.5.3. OECD의 평가와 제안

멕시코 농정에 관한 OECD의 평가와 제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정책은 장기 생산성, 지속가능성, 수익성에 관한 전략적인 투자에 더욱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초점의 변화는 기존에 투입재와 생산과 연계한 보조에서 새로운 기술의 채택, 지식 이전, 지도 서비스, 식품안전체제 개발, 하부구조 등을 보조하는 것으로 전환해야 함을 뜻한다.
- 생산이나 투입재 사용과 재연계시켜 지급하는 면적 직접지불인 생산형 PROAGRO의 경우 그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이 조치의 목적대로 소규모 농가의 소득 증대에 효과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 정책 우려 사항 가운데 하나로 펌프 용수에 대한 전기 보조를 점차 줄여나가는 것은 용수 사용의 최적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대신하여 농가로 하여금 더욱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물의 사용방식을 채택하도록 돕기 위해 직접 보조하는 것을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
- 상업농은 비즈니스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갖춰야 한다. 가격 헤징과 같은 특정 위험관리 도구에 대한 높은 보조는 지양되어야 한다. 개별 농가가

13) 이 밖에도 ADP는 “축의 전환(change pillars)”이란 이름으로 농식품 부문의 10대 변화를 제시하고 있음(Juarez 2014).

- 파트너십 모형과 공급망 통합을 통한 소규모 농가의 생산성 증대
- 물의 적합한 사용, 지속가능성 및 현대화 추구
- 전략적 투입재, 비료 및 개선된 종자의 국내생산 촉진
- 혁신, 응용 기술개발, 새로운 자문서비스와 연계한 기술 지원 등의 촉진
- 기후와 시장 위험의 관리와 예방
- 건강하고 안전한 식량의 생산 촉진
- 시의적절하고 경쟁력 있는 신용 촉진
- 지역개발, 농업 고원, 전략적 프로젝트의 증대
- 수급 균형을 위한 계획
- IFAT(innovative, flexible, agile and transparent) 사무국의 새로운 조직 모형

대처할 수 없는 수준의 극심한 재난 상황에 대한 정부 지원은 바람직 하지만 일정하게 정해진 규칙이 필요하다.

- 상업농과 소농의 필요에 대응하는 정책 접근은 달라야 한다. 전체 경제가 개발되어감에 따라 빈곤 경감은 생산과 연계한 보조가 아니라 지역 기반의 개발정책과 목표화된 사회적 지원을 통해 추구되어야 한다.

2.6. 러시아

2.6.1. 농업에 대한 지원

농업 생산자를 위한 보조는 장기적으로 변하여 왔으나, 2012-14년에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총보조추정치(TSE)의 85%가 생산자보조(PSE), 12%가 일반 서비스, 나머지 3%가 도매 및 가공업자들에게 지급되었다. 생산자보조 중 95%는 시장가격보조와 투입재 및 생산 보조이다. 그러나 전체 시장가격보조는 다양한 농산물에 걸쳐 변동이 심한데, 이는 수입된 축산물과 설탕에 관한 국경보호와 수출하는 곡물과 유지종자의 조세가 혼합된 효과를 반영하는 것이다. 축산물 생산자들은 또한 세계 수준보다 낮은 국내 곡물가격의 혜택을 누린다. 일반 서비스에 관한 보조는 분야별로 고르게 배분되고 있으나 가장 큰 규모의 지원은 농업지식체제에 사용되고 있다.

2.6.2. 주요 정책의 변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되는 국가 농업개발 프로그램(State Program for Development of Agriculture, SPDA)은 2016년도에 4년차를 맞았다.¹⁴⁾ 악화된 거시경제 상황은 이 프로그램의 초기 재정 목표들을 다시 검토하도록 만들었다. 일부 하위 프로그램에 관한 예산이 증감되었고, 투자자금이 새롭게 도입되었다. 특정 투자신용보조를 중단하기로 한 이전 결정은 보류되었다. 수입대체 관점에서 주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은 우유, 육류, 온실 및 조생종 채소, 씨감자, 과일, 베리 등이다. 우크라이나 위기 때에 취해진 여러 나라로부터 농식품 수입 금지는 연장되었다.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EAEU)의 조약이 러시아의 참여와 더불어 발효되었다.¹⁵⁾ 2015-16년에 EAEU의 활동은 회원국 간 위생과 검역조치 및 식품안전 규정의 조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14) SPDA는 8년간 농업과 식량시장 개발에 총 760억 달러(약 89조원)를 투자하는 계획이다. 핵심 개발 분야는 축산업업. 정책 수단 측면에서 두드러진 변화는 이차율 보조를 농업인을 위한 직접 소득보조로 전환하는 것임(Vassilieva 2012).

15) EAEU는 2015년 1월에 발효되었으며, 회원국은 러시아를 비롯하여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등임.

2.6.3. OECD의 평가와 제안

러시아 농정에 관한 OECD의 평가와 제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2013-20년 SPDA 개시와 함께 형성된 농업 정책은 농업 생산과 농식품 수입대체를 촉진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최근의 정치적 상황은 수입대체 중심의 정책을 더욱 강화시켜 지속적인 농식품 자급정책을 추진하도록 만들었다.
- 위생과 검역조치, 기술규정 등에 기반을 둔 비관세 국경조치는 여전히 작동되면서 일부 무역 상대국에 의한 무역제한 우려를 초래하였다.
- 정부는 이어지는 경제침체로 인한 농업분야의 영향을 완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내 정책은 농업부문, 특히 수입 농산물과 경쟁하는 부문에 대한 금융자원의 흐름을 증가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다.
- 농업 유통과 식량 분배 하부구조의 개선뿐만 아니라, 국내 종자생산의 개발과 가축 육종을 새롭게 강조함으로써 투입재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힘쓰고 있다. 식량가격의 폭등은 국내 식량원조의 하부구조를 구축하는 계획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 전반적으로 가격을 왜곡하는 보조와 수입 보호정책은 정책 수단으로써 지속되고 있다. 농업 경쟁력의 상당하고도 지속적인 개선은 연구와 개발, 기술 이전, 하부구조, 식물과 가축의 보건 위생체제, 농촌지역의 삶의 개선에 우선권을 두고 투자해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7. 남아프리카

2.7.1. 농업에 대한 지원

남아프리카는 1990년대에 농업보조 규모를 축소하였다. 2010년 이래 농가 보조는 농가 매출의 5% 미만에 그쳤다. 2013-15년의 총보조추정치(TSE)은 GDP의 약 0.3%였다. 생산자보조추정치(PSE)는 총보조추정치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생산과 투입재 사용에 따른 보조가 두드러졌다. 일반 서비스에 관한 보조(GSSE)는 주로 농업 지식과 혁신체제 및 하부구조 지출이 차지하였다.

가격 왜곡수준은 낮은 편이다. 설탕 및 최근의 우유와 밀을 제외하면, 국내 가격은 국제 가격과 거의 비슷하다. 예산에서 지급된 보조 대부분은 토지개혁 수행, 신규농가 지원, 농업 전반에 걸친 일반서비스에 관한 것이다.

2.7.2. 주요 정책의 변화

대부분의 정책 수단과 직접지불은 소농을 대상으로 계속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주로 재분배 되거나 반환된 토지에 정착하는 신규 농가에 생산 용자를 비롯해 정착보조를 제공한다. 토지 재분배와 관련하여 정책이 변화했다. 새로 획득한 모든 토지는 국가 소유로서 농지 대장(Agricultural Land Holding Account)에 등록되고, 임대계약으로 선정된 수혜자들에게 제공된다. 수혜자들은 프로젝트가 경제적으로 타당할 경우 임대 계약이 종료된 후에 토지를 처분할 수 있다.

2014년과 2015년에 있었던 심각한 가뭄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는 애초에 농업 지원으로 편성된 3만 3,000만 자르(ZAR, 약 268억 원)를 가뭄 구제 예산으로 전용하였다. 2016년 2월에 재무부는 가뭄 구제를 위해 10억 자르(약 813억 원)를 추가로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 자금 대부분은 용수 공급, 농업 보조, 운송 공급, 가축 사료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최근에 남아프리카는 설탕, 밀, 가금육, 감자 등에 대한 국경보호 수준을 높여 왔다. 남아프리카는 미국으로부터 육류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철회하면서 아프리카 성장기회법(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 AGOA)아래 미국시장에 자국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2.7.3. OECD의 평가와 제안

남아프리카 농정에 관한 OECD의 평가와 제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상대적으로 낮은 남아프리카의 시장가격보조는 1990년대 중반에 시행한 개혁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때의 농정변화에는 농산물 유통에 관한 규제 완화, 국내 시장의 자유화, 농업 무역에 대한 장벽 제거 등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개혁들은 시장가격보조와 상업농에 대한 예산 보조를 줄임으로써 총 농업보조를 큰 폭으로 감축할 수 있었다.
- 늘어난 농업보조 지출은 토지 개혁에 필요한 자원과 생계농, 소농, 상업농 등 그 수혜자들을 지원하는데 사용되었다. 최근의 주된 농업정책 발전과 도전은 토지 개혁 프로그램의 이행과 신규 농가를 뒷받침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2013-15년에도 신규 농가의 생존 가능성을 보장하고 실패한 프로젝트를 복원하며 재자본화(recapitalize)하는 조치를 지속하였다. 이에 관한 예산은 앞으로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 주요 미래 과제는 신규 농가의 수요에 맞춘 보조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것이다. 공공-민간 파트너십 아래 민간 이해당사자(예: 경험이 많은 상업농)가 참여하는 보조 프로그램은 이용가능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끌어들이 수 있도록 하며, 공공기관과 현재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다.

- 토지개혁의 속도는 그 수혜자들의 능력 형성을 증진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계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토지개혁 그 자체가 기대했던 흑인 농촌인구의 복지 증진, 농촌지역의 식량안보 보장, 생존할 수 있는 상업부문의 개발 등의 성과를 얻지 못할 것이다.

2.8. 터키

2.8.1. 농업에 대한 지원

1990년대 후반부터 단행한 일련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보조수준은 해마다 변하여 왔고, 그 규모는 OECD 평균보다 높았다. 시장가격보조(MPS)와 같이 가격을 왜곡하는 보조 형태가 주를 이루었고 이러한 보조가 생산자보조(PSE)의 3/4을 차지했다. 총보조 추정치(TSE)는 GDP의 2% 수준이고 생산과 투입재 사용에 기반을 둔 보조가 가장 컸다. 일반 서비스 보조(GSSE)에서 하부구조 구축과 유지가 전체의 8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가격 왜곡 수준은 조금 감소하였으나 국내 가격이 세계 가격보다 20% 정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09년에 비연계 직접지불은 폐지되었으나 생산에 기반한 보조는 증가했다. 터키에서 주된 직접지불은 부족불 지급(deficiency payment)으로 국내 공급이 부족한 농산물에 지원된다.

2.8.2. 주요 정책의 변화

2014-18년 제10차 개발 계획(Development Plan)에서 밝혔듯이, 농업정책의 전략적 목표는 국제 경쟁력을 갖춘 친환경 농업부문을 개발하는데 있다. 그 근본 목표는 사람들에게 영양측면에서 균형 잡히고 충분한 식량을 공급하는 것이다.

2009년에 비연계 직접지불을 폐지한 후 품목특정 부족불 지급과, 재배면적 또는 사육두수 기준의 지급이 주된 보조 형태로 자리 잡았다. 최근에 터키는 부족불 지급에 대한 개혁안을 제시하였는데, 가장 적합한 생태 조건에 맞춰 생산구조를 합리화하는 작물에 따라 차별적으로 보조하는 방안이다.

2.8.3. OECD의 평가와 제안

터키 농정에 관한 OECD의 평가와 제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터키는 지난 10년간 농업부문의 법적, 제도적 틀을 강화하는데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 1986-88년 이래 터키 정책은 시장 중심으로 개선한다는 그 목표가 변동이 많았다. 이는 취약한 환율과 높은 물가 상승률이 지배한 거시 경제적 틀 속에서 임시응변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2013-15년에 생산자보조가 농가의 총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로 1986-88년 수준과 거의 같았다. 그러나 이는 OECD 평균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다.
- 생산자보조는 시장가격을 왜곡하는 조치들로 주로 구성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지속적인 농업 생산성 향상이 저해 받고 있다. 앞으로는 가격을 왜곡하는 보조가 감소되어야 한다.
- 경쟁적인 시장 환경아래 운영될 수 있도록 국영무역기업을 경제적으로 생존력이 있는 기업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보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농업 지식과 혁신체제에 더 큰 공공 부문의 투자가 필요하다.

2.9. 베트남

2.9.1. 농업에 대한 지원

베트남의 농업보조 규모는 변동 폭이 큰데, 이는 시장가격보조(MPS) 탓이다. 2013-15년의 평균은 단지 0.6%였으나, 품목별로 차이가 난다. 설탕이나 소고기처럼 수입 농산물과 경쟁하는 품목들은 관세의 보호를 받은 반면에 수출 농가들은 간접적으로 조세 대상이 되었다. 쌀 농가는 30%의 이익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목표가격 아래 가격보조제도와, 쌀 생산에 있어 논을 유지하는 것과 연계된 면적 기준 직접지불을 통해 혜택을 받고 있다. 총보조추정치(TSE)는 GDP의 0.5% 수준으로 낮다. 일반 서비스 보조에서는 특히 관개시설과 같은 하부구조의 개발과 유지가 가장 중요한 항목을 차지하고 있다.

2.9.2. 주요 정책의 변화

2015년에 기본적인 국내정책 수단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베트남은 지역 및 양자

간 무역 협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무역의 자유화를 추구하였다. 특히 베트남은 11개국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TPP) 안에서 자유무역협정을 성공적으로 체결하였다. 이밖에도 베트남은 11개 FTA도 체결하였다. 아직 두 협정 모두 비준받기 전이지만, 발효된다면 농업을 비롯한 전반적인 베트남 경제에 폭넓은 영향을 줄 것이다. 또한 베트남은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과 한국과 FTA를 체결하여 2016년 말까지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2.9.3. OECD의 평가와 제안

베트남 농정에 관한 OECD의 평가와 제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국내와 국제적인 정세를 고려하면, 지난 20년보다 앞으로 10년이 베트남 농업부문에 더욱 큰 도전의 기간이 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2007-08년에 정점이었던 베트남 수출 농산물 가격은 최근에 하락하고 있고, 앞으로 그 실질가격도 중기에 하락할 전망이다. 농지의 확대, 값 싼 노동력의 활용, 생산성이 높은 비료의 사용 등 생산성 증대를 위한 요소들은 모두 이미 활용되었고, 이로 인한 환경측면의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 이것은 베트남이 당면한 어려움이나,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대규모 농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품질과 부가가치 증진에 초점을 맞춘다면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 농업 발전의 환경을 개선하려면 부문별 생산 요소들을 재분배가 용이하도록 해야 하고 투자 저해 요인들을 없애야 한다. 마찬가지로 농업 기관과 관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 농업농촌개발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와 관련 부처 간 협력 강화
 - 공공 기금이 사용된 프로그램의 투명성과 책임 제고
 -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정책 결정
 - 정책과정에 관측과 검토체계의 통합
- 부족한 토지 자원을 효과적으로 분배하려면, 농가 간 다양한 협력을 통해 농가 통합을 촉진시켜야 하고, 재배 작물의 선택을 제한하는 것이 폐지되어야 한다. 또한 강제적 토지전환의 범위가 제한되어야 하고, 이러한 전환에 따른 보상은 공개시장의 가격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토지 행정에 있어 사회적 갈등과 부패를 제약하려면 참여적인 토지 사용계획이 장려되고 정부의 간섭 없이 토지 사용자간

직접 거래가 촉진되어야 한다.

- 관개 서비스 부과금의 면제가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으나, 부작용도 따른다.
 - 용수를 절약해야 할 동기 부여 불가
 - 국가 예산에 의한 관개 시설 구축뿐만 아니라 운영 및 관리 예산까지 부담
 - 관개와 배수 관리업체들이 품질 높은 관개 서비스를 제공할 인센티브 부재 이전엔 그랬듯이, ha당 기준이 아니라 물 단위당 기준에 의해 물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물 사용 효율을 증진시킬 것이다.

3. 요약과 결론

신흥국들의 농정 변화와 개혁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세계경제가 좋지 않은 최근의 거시경제 환경에서 농업부문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농정 변화도 생산자들의 소득 보장과 가격지지에 이전보다 더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흥국들은 생산이나 투입재 사용과 연계한 지급, 가격지지를 위한 정부 구매 등 시장가격보조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보조의 가격왜곡 효과를 줄이기 위해 비연계 직접지불이 도입되고 있으나 아직은 그 비중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이나 멕시코처럼 직접지불의 형태는 면적 기준 보상 직접지불이 상대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반면에 멕시코는 면적기준 직접지불을 생산과 재연계시키는 조치를 취하였고, 터키는 비연계 직접지불을 폐지하고 다시 생산과 연계된 보조로 회귀하고 말았다. 이는 농정개혁의 흐름이 역전되는 사례라 지적할 수 있다.

각 국은 다양한 발전계획아래 장기적으로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천연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농업부문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생산 곧 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데 있어 정책 측면의 노력과 관심이 상대적으로 미흡함을 알 수 있다.

끝으로 신흥국의 농정 이슈에 관한 OECD의 평가와 권고는 시장중심의 개혁을 일관되게 요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무역이나 가격 왜곡효과가 큰 국경보호 조치와 가격지지 정책을 줄이는 대신에 직접지불처럼 목표화된 정책 수단의 채택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현재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임기응변식 정책변화보다 중장기 목표아래 지속가능한 농정 수단의 사용을 강조하고 있다.

<표 1>은 신흥국별 주요 농정문제와 OECD 권고사항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표 1 신흥국의 주요 농정문제와 OECD의 권고 사항

국가	주요 농정 문제	OECD 권고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쌀과 밀의 최저가격 조치 유지 수매가격에서 목표가격으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한 농업과 환경 구축 물의 효율적 사용
콜롬비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콜롬비아 시엠브라(Siembra) 조치 관세 완화 또는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표화된 정책 시행 토지제도 개선
인도네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량자급 확보 국내외 쌀 가격의 격차 저소득층에 대한 쌀 배분(Raskin) 	<ul style="list-style-type: none"> 쌀보다 조건부 현금방식 선호 비료보조의 개선 행정절차의 간소화
카자흐스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곡물수매정책 폐지 ha당 보조 폐지 민간의 토지 소유권 인정 농업협동조합법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부채 구조 개혁 공공기관의 투명성 증진 기후변화에 대응 하부구조 구축을 위한 투자
멕시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적과 생산 연계 보조 미국과 무역 분쟁 해결 행정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 사용의 효율 증진 농가 규모별 차별된 정책 정책효과 평가
러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시경제 환경에 따른 농업예산 조정 농업투자 정책의 변화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 발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량자급 확보 국경보호 수준의 완화 농업투자 자금의 유동성 연구개발과 하부구조 구축
남아프리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보조 축소 신규농가에 대한 보조 임대 계약아래 토지 재분배 미국에 대한 무역장벽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농가 조사 토지개혁의 목표 명확화
터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격 왜곡효과 친환경 농업 영양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격보조 개혁 농기업의 생존능력 강화 농업지식과 혁신체제에 대한 투자 증진
베트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FTA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개 서비스 부과금 효과적 토지 분배 거버넌스 효율 증대

자료: OECD(2016).

참고문헌

- Juarez, Benjamin. 2014. Mexico Announces Ambitious New 6-Year Agricultural Development Plan. GAIN Report No. MX4006. (<https://goo.gl/tQFupJ>)
- OECD. 2016a. *Agricultural Policy Monitoring and Evaluation 2016*. Paris. (<https://goo.gl/xGjyN8>)
- _____. 2016b. OECD's Producer Support Estimate and Related Indicators of Agricultural Support: Concepts, Calculations, Interpretation and Use. Paris. (<https://goo.gl/EXJhVd>)
- _____. 2015. *OECD Review of Agricultural Policies: Colombia*. Paris.
- _____. 2014. Transitory Food Insecurity in Indonesia. OECD Working Party on Agricultural Policies and Markets, TAD/CA/APM/WP(2014)14/FINAL. (<https://goo.gl/8dgPrm>)
- _____. 2012. *OECD Review of Agricultural Policies: Indonesia*. Paris.
- Sharma, Sachin K. 2016. WTO and Shrinking Policy Space for Food Security: Issues and Challenges for China. Working Paper CWS/WP/200/28, Center for WTO, Indian Institute of Foreign Trade. (<https://goo.gl/hNVqNI>)
- Vassilieva, Yelena. 2012. Russian Federation: Agricultural Development Program 2013-2020. GAIN Report No. RS1270. (<https://goo.gl/uTZR6t>)
- WTO. 2015. US – COOL(DS384, 386). (<https://goo.gl/b9mZh4>)